

월간 '동쪽나라' 5월호로 휴간 새싹 포교 '구멍'... "인수자 찾습니다"

《동쪽나라》를 살려주세요. 매달 초에 잡지를 눈빠지게 기다리는 초등학교 3·4학년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과 신도들이 《동쪽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교계의 유일한 어린이 전문잡지인 월간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근)의 잠정 휴간 소식을 접한 동쪽나라어린이회 회장 지삼상보살의 눈물겨운 호소다.

출판사업 불황으로 '불지사 운영' 한계

어린이 불교문화와 포교를 이끌어 온 《동쪽나라》가 발행 7년만에 잠정 휴간을 결정.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은 어린이 포교에 비상이 걸렸다. 《동쪽나라》는 지난 4월 말부터 잠정 휴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근 발행인은 "나름대로 어린이 불교문화사업의 중요성과 사명감으로 애를 썼지만 최근 2년여에 걸친 어린이 독자 감소로 인한 수입 격감과 그동안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었던 출판사업의 전례없는 불황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부득이 정간에 이르렀다"며 "어린이 독자와 후원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쪽나라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동쪽나라의 정간이 종단과 불교계 어른들의 무관심에 빚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린이 포교가 교계 전체의 중요문제라는 공동인식의 부재가 근본원인이라는 것.

《동쪽나라》는 90년 1월 재단법인 대원사에서 《글로벌어린이》(발행

인 장상문)로 창간된 이래 발행 2년만에 재정적인 이유로 폐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을 지금의 발행처인 (주)불지사가 인수. 지난 4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불심하나로 발행해 왔다. 인수당시 대원사와 불교진흥원으로부터 매달 4백만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으나 장상문기사의 타계로 호지부지 되고 만 것도 재정난의 한 요인이 됐다.

지난 2년간에는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돼 더 이상은 불지사 혼자만의 힘으로 발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유수의 불교기관이나 단체에 간접적인 구독지원과 발행처 이전등을 타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포교는 각종 불사의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적자누적등 경영난 교계 무관심 안타까워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타종교 어린이잡지는 '잠재적인 신도확보'라는 포교전략 아래 교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동쪽나라보다 30여년이나 앞서 발행된 기독교의 《새벗》이나 가톨릭의 《소년》은 교단차원의 지원과 학부모들의, 신심에 힘입어 현재 월 1만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으나 《동쪽나라》는 5천부(유료독자 2천명) 발행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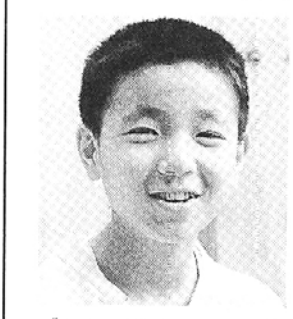
이와관련 어린이포교 전문가들은 《동쪽나라》가 폐간된다면 이는 불교계가 어린이 포교를 포기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조계종이나 불교진흥원 등 교단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반드시 계속 발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 불교계 유일의 어린이잡지 《동쪽나라》가 재정난과 교계의 무관심으로 5월호를 끝으로 휴간에 들어가 교단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아빠, 난 아빠같은...' 퍼낸 중학생 작가 박상욱 군



"어둠 속에서 나를 찾는 일이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현대판 선재동자 일기 '책으로' 마음·죽음 등 담아... 경전번역 '꿈' 한문공부

필래요(가리운 간)에 나오는 자신과의 대화 내용이다. 지난해 이미 《키의 1미터 마음은 2미터》라는 책으로 또래 아이들 같이 많은 성숙함을 보여줬던 상욱이가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를 책으로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판 선재동자 일기 '책으로'

마음·죽음 등 담아... 경전번역 '꿈' 한문공부

상욱이는 이 책에서 존경심이나 참음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기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죽으면 마음은 어디로 가는지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자기 자신과의 대화

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그야말로 선재동자가 걸었던 구도의 길을 다시 보여주는 듯 하다. 아버지 박종식 시인(44)의 말처럼 "전생에 스님이였을지도 모를" 상욱이는 이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다. 상욱이는 부처님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때 부터 참선을 시작했고,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 인사동 연천서실에 다니며 한문과 서예, 동양화를 배우고 있다. "글과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게 상욱이의 꿈이다. <재>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난 숲은 작막하다	법 정	샘터
2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3	능엄경 주해	윤허	동국역경원
4	진생어행	정영우	정신세계사
5	흰뿔 털고 같이 가세	서암	정토
6	그날 살래 바꾸고 살래	법륜	모색
7	금강경 경의	무비	불광
8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비	민족사
9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원한	우리
10	기도	일타	효림

구입문의: (02)737-0695

◇ 기사남처 '불서택선' 쉽니다.



나한이야기 부처가 되는... 만화 화엄경 부처님 일대기

재미있고도 내용이 알찬 청소년용 불서가 4권이 새로 나왔다. 아동문학가 선용씨의 《나한이야기》(현암사)와 영남대 김성규교수의 《부처가 되는 100가지 방법》(큰산), 임기훈 글·조성연 그림의 단행본 《만화 화엄경》(불교만화사), 동화작가 이슬기씨의 《부처님일대기》(하리원) 등이 그것이다. 《나한이야기》는 16나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룬 불교동화책이다. 전생에 박적이었던 인제대, 힘이 천하장사인 벌사라불다라, 어머니 뱃속에서 여섯해나 있던 태어난 나호라 등 생김새와 성격이 서로 달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훌륭한 아라한이 되어 따뜻하고 바른 세상이 되도록 힘쓰는 나한들의 이야기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부처가 되는...》은 의과대교수인 저자가 《백유경》에 나오는 불교우화를 통해 청소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배움을 잡고 웃는 사이에 웃음 뒤에 숨겨진 진주와도 같은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우화집이다. 선재동자의 구도기인 《만화 화엄경》 시리즈 7, 8, 9권 완간과 동시에 나온 단행본 《만화 화엄경》은 80권 40품으로 구성된 방대한 《대방광화엄경》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후 만화로 쉽게 풀이하고 있다. 또 《부처님일대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인 연등불 이야기에서부터, 탄생, 왕자의 생활, 아수다리와 결혼, 성문 밖에서 만난 사람들, 고행, 깨달음, 그리고 부처님이 되어서 들려 주신 법문,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열거를 곁들이면서 흥미있게 엮었다.

조계종 청소년 법요집 발간

사찰예법 불교학생회 의식 수록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청소년 법요집》이 새롭게 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포교를 목적으로 신세대의 성향에 맞는 청소년 법요집을 준비해왔다. 《청소년 법요집》은 총 8장으로 사찰예법, 법회, 수계 포살 법회, 찬불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그동안 각 사찰에서 치뤄지는 청소년 법회에서 마땅한 교재가 없어 자체적으로 법회자료집을 준비하거나 제대로 법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발간돼 주목된다. 포교원은 중립학교와 청소년 불자연합과 라미타를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02)720-7060

과학과 불교

연기·공사상에 접근하는 과학분석

지난 2월 정년퇴임 기념으로 《과학과 불교》를 상재한 동국대 김용정 교수는 "불교의 우주관과 인생관이 세계의 어느 종교나 철학사상보다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잘 해명하고 있는가는 현대과학이 논증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과학은 나와 세계,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와 무, 유기체와 무기체, 의식과 무의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동일한 실체가 양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 자연과 물질은 해명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러한 현대과학이 불교의 색심불이(色心不二)와 연기 및 공사상에 접근해 오고 있다"며 "과학과 불교는 결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석림 1만3천원>

새로 나온 책...

▲부처님의 유언(공파스님 역해)=부처님이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간곡하게 당부한 유언을 담은 《불유교경(佛遺教經)》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20여년간 이 경을 독송하고 해독해 온 공파스님이 원문을 번역 해설했다. <태일 7천원>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해원스님 역)=당·송시대 언어에 대한 저자(秋月龍眞·秋月眞人 공저)의 십수년에 걸친 어학적 문법적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어록 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시한다. 역자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해원스님.

《운주사 1만2천원》

▲직적은 인간의 마을에서(한승원 지)=금강석 같은 지혜가 담긴 불교철학과 민간철학, 그리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속에서 깊이 울린 생생한 글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랑과 감동의 편린들, 육신을 여의고 낙낙함을 얻은 작가의 지혜를 곳곳에 새겨놓고 있다. 소설가 한승원씨의 에세이집. <고려원 7천원>

▲심경 및 심현담(해안 강설)=《반야심경》과 《심현담(十玄談)》은 짧은 글에 불교 진리의 골수를 담고 있어 그 깊은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해안스님이 서래선림(西來禪林)의 수좌들을 위해 《심경》과 《심현담》을 설파한 법문을 엮었다. <불교전통회 5천원>

▲무문관(문재현 역)= '無'자 화두로 정진한 지 6년만에 점심시간을 알리는 북소리에 확철대오한 무문선사의 면모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고 그 때때로의 경지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는 공안집이 《무문관》이다. 공안 각 척마다 도움말과 시흥을 달랠서 역했다. <바로보인 1만2천원>

▲화랑문화의 신연구(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역)=화랑도는 불교 유교 도교 등의 근본이념까지 포함하는 신라인의 이상적 이념체제이자 행위체제다.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회장 김택규)가 종교철학 역사 문화 군사 등 관련 연구성과를 집약했다. <문덕사 2만5천원>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뜻이 같은 중생들을 두고 떠나서 하는 열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제자는 점점 마시리고 오히려 대승을 위하고 있지만 가엾은 중생들을 차마 두고 떠나시기가 인부러워 의심이 안나고 거듭게 질문을 재촉하셨다. 숲을 죽여가며 열반을 재촉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급하고 순박하게 이어지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끝나지 선천초록과 역조창선의 대성통곡이 전 허공계를 울리었다.

- 계율에 대하여
- 마음에 대하여
- 육체에 대하여
- 수행에 대하여
- 인연에 대하여
- 교만에 대하여
- 아침에 대하여
- 욕심에 대하여
- 인복에 대하여
- 마법에 대하여
- 정진에 대하여
- 성정에 대하여
- 아침에 대하여
- 지혜에 대하여
- 최면에 대하여
- 수행에 대하여
- 의문에 대하여
- 진리에 대하여
- 부족에 대하여
- 무상에 대하여

신국문/400면/값 7,000원

태일출판사 단체 주문 받습니다 927-2834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서 지음 / 손민규 옮김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환생설은 티벳 불교인들의 생활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환생설은 연기설(緣起說)과 인과(因果)의 법칙과도 관련되어 있다. 지혜와 자비의 계발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이룬 덕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지향하는 바, 따라서 이런 계발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환생이 필수요인이다. - 달라이 라마 -

신국문/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